**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

**<요한복음 12장 24-26절>**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인생을 대충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무엇이 진정 잘 사는 길인지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삶을 노력할 것입니다. 문제는 바로 그 확고한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란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나아갔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건성으로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만한 삶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라게 될 거라고 합니다. 거기에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이 거기 없어서 놀라고, 거기에 있을 거라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거기 있어서 놀라고, 마지막으로 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격하며 놀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한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의미 없게 여기신다면, 그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20세기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 C. S. Lewis는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시는 곳이다 …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받을 영광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처럼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분에게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혹은 그분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바를 이루길 기대하며 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 차츰 어긋나는 길로 나아가시자 그 따랐던 무리들 대다수가 그분 곁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잡힌 후 그에게 닥친 작은 위기 앞에서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상황이 전개될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지 몰라 갈팡질팡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때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실감하게 될 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분을 섬기며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그분이 내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면 따르고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즉흥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손쉬운 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더 나아가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라는 요구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이 가셨던 길을 목숨을 걸고 따르라는 명령이고, 바로 그런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으리라는 약속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곧 걸어가려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신 것처럼,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는 우리도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 받습니다.

혹자는 질문할 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꼭 고난의 삶이어야 하는가?” 물론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만약 이 세상이 진리 안에서 늘 바른 방향으로 굴러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세상의 흐름에 그냥 휩쓸려 살면 몸은 편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계속 불편할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에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박해와 고난을 겪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진리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누릴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즉 7월 6일은 체코의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순교 기념일이었습니다. 작년에는 600주년이어서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했었는데, 올해는 좀 조용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 날을 계기로 우리가 체코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삶을 되새겨볼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특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세교회의 부패한 현실 속에서 14-15세기에 개혁의 불길이 가장 먼저 거세게 타올랐던 곳이 바로 이 체코 땅이었습니다. 얀 후스를 비롯한 체코의 종교개혁자들은 당시 설교가 라틴어로만 이루어지던 현실 속에서 과감히 평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 설교를 시작하였고, 당시 사제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던 성찬 잔이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개혁 프로그램을 진행시켰습니다.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바라는 그들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얀 후스는 자신의 글 “성직 매매에 대하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나 자신의 악한 욕망 때문에 어렸을 때 빨리 사제가 되어 좋은 집에 살며 화려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성경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악한 욕망임을 알았다.”

후스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수업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하게 되었고,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회심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 그의 양심은 사람들이 진리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현실의 불의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통해 진리를 이해하고 그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 동시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생겨나 이것이 행위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것이 후스가 체험을 통해 확신하고 있던 바였고, 바로 이 진리의 사역을 위해 그는 박해를 무릅쓰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1415년 콘스탄츠에서 죽음을 앞두고 체코 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얀 후스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나는 곧 있을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나는 진리로부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후스가 죽은 후 그의 신앙의 유산을 따라 모라바 지역에 형제단이 형성됩니다. 카톨릭 합스부르크 제국 하에서 신앙의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그들은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카톨릭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양심의 자유를 위해 그 나라를 떠나야 했습니다.

결국 1720년부터 모라바 지역 수흐돌 나드 오드로우의 형제단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안정된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떠나는 믿음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약 350킬로미터를 이동하여 결국 그들은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곳에 정착해 다른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신앙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이후 세계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폭발적인 선교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쉬운 삶의 길을 포기하고 그처럼 고난의 여정을 택하게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이전엔 못 알아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고, 이전엔 받을 수 없었던 주님의 피를 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것이 거저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 허락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붙들고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편한 삶 대신에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후스의 순교 이후 독일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타락한 교회는 면죄부를 팔아 돈을 모으고 우둔한 백성은 면죄부를 사서 죄 문제를 돈으로 손쉽게 해결하려 하는 당대의 불의한 현실을 마르틴 루터는 가만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의 문제를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성교회 문에 붙였습니다. 그런데 1517년의 이 일은 이후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져갔습니다. 그는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지만 그보다 많은 반대자들과 또한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1620년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을 받고 루터는 엄청난 심적 부담과 고통을 느낍니다. 카톨릭 공의회의 결정으로 얀 후스가 죽은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죽을 수 있다는 각오로 보름스 여정에 오릅니다.

그가 이제까지 했던 말과 썼던 글을 철회할 것을 공의회로부터 요구 받았을 때 루터는 하루의 말미를 청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고, 그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진리를 분별하기 어렵던 시대에 하나님은 곳곳에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을 일으키셔서 진리의 사역을 이루어가시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였고, 그 진리의 사역 중에 박해와 고난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랐습니다. 편한 삶의 길 대신 양심의 자유를 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썩어진 한 알 한 알의 밀알로부터 이후 많은 열매가 맺혔고, 오늘의 우리도 그 열매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방해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할 수 있고, 또한 은혜로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기 쉽고, 진정한 자유의 길에서 더 멀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신앙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다른 모든 것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성된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그리스도인은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이웃 안에 산다. 신앙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며, 동시에 사랑에 의하여 그는 그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 내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붙들린 바 되어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좇아가는 길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는 편한 삶의 길 대신 양심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그 길에 고난이 있어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히 여기심을 받는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귀히 여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주님 가신 섬김과 희생의 길 끝까지 따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에**

**진리 안에서 고난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